

합격기
[2012년(제56회) 행시 일반행정직 합격]

나의 마음에 답이 있다



김진환

- 인천 삼산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4년 재학 중
- 2012년(제56회) 행시 일반행정직(인천)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12년 행정고시 일반행정직에 합격한 김진환입니다. 부족한 제가 이런 합격수기를 써도 되려나 처음에 제안 받았을 때 많이 망설였지만 저의 경험이나 공부방법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이렇게 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백 명의 합격생에게 백 가지 공부방법이 있다고 하듯이 이 수기도 그저 가볍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재경직으로 3번 그리고 일반행정으로 1번 시험을 봤고 1차를 3번 낙방했지만 네 번째에 1차부터 최종합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고시반에서만 공부하였고 신입동에서 실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공부장소나 2차를 본 횟수, 과목별 공부기간 등이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불어 기술적인 공부방법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수험생활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 꿈에 대한 확고한 비전, 그리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뛰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험의 생활은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어질 때 슬럼프에 빠졌고 확고한 신념과 책임감을 가질 때 합격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결국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II. 나의 수험생활

1. 수험의 준비기간(2008년 8월~2009년 8월)

군복무 중 행정고시를 하기로 마음먹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까지 내가 왜 행정고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꽤 오랜 시간 고민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 선 이후 2008년 2학기 복학 때부터 학교에서 행정학이나 경제학 관련수업을 들으면서 고시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 8월에 고시반에 들어가기까지는 학교에 다니면서 황종휴선생님 예비순환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 경제학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이 서브는 매우 기초적이었지만 수험 생활 내내 보완작업을 하여 제 수험생활이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학과라 경제학에 관심이 많기도 하였으나 이때 경제학에만 집중하여 기초를 탄탄히 쌓아 놓은 것이 제 수험생활에 있어서 매우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토익은 군대에서 공부를 하여서 제대 후 바로 취득하였고 두 달 정도 PSAT 공부를 열심히 하여 09년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전 과목 평락을 맞고 50점대의 점수로 낙방하였습니다.

2. 수험생활의 전반전(2009년 8월~2011년 3월)

2009년 2학기에도 학교를 다녔는데 이때 고시반 일우현에 입실한 것은 제 수험생활에 있어서 매우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채생활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주변에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쉽게 물어볼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무엇보다 생활비나 강의료가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은 고시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2009년 2학기에는 행정법, 행정학 1순환을 들었습니다. 경제학은 교과서 등을 읽으면서 서브를 계속 보완해 나갔고 행정법이나 행정학은 거의 처음이어서 기본적인 개념이나 논리를 알아가기에도 벅차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가 끝나고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PSAT에만 집중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고시반에서 신림동과 비슷한 순서로 모강이 진행되었는데 모강을 따라가면서 따로 1회 정도 문제를 더 풀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해석 강의와 언어강의도 들어보았고 기본적인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으나 2010년 시험에는 평균 10점차로 낙방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1차에 떨어진 것은 오히려 2차공부의 기초를 강화할 수 있게 해주어 장기적으로 볼 때 저에게는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3순환을 따라갔는데 경제학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있어서 김진욱선생님 수업을 들으며 다양한 유형의 문제풀이를 통해 크게 실력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또 행정법은 김기홍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더라도 행정법에서 다루는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고 행정법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경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도 3순환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2010년 여름에는 수강하였던 경제학 3순환 복습정리를 하여 서브에 추가 및 보완작업을 하였고 더불어 행정법 서브를 작성하였습니다. 교과서를 계속 읽으면서 김기홍선생님 쟁점정리를 근간으로 하여 굵직한 논점들 위주로 직접 손으로 써서 서브를 만들고 나니 행정법의 큰 틀을 알 수 있어서 꽤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되겠지만 저는 특정 시기에 한 과목에 집중해서 그 과목의 기틀을 만드는 작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수험의 실력은 꾸준히 성장하기도 하지만 단계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특정기간에 집중하여 한 과목의 실력을 늘리는 방법은 이런 식의 단계적 성장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는 부족한 과목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행정학도 가볍게 서브를 만들었으나 이때는 줄글의 요약에 불과해 행정학에 대한 큰 그림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재정학은 이준구교수님책에 단권화하고 국경의 경우 황중휴선생님 GS1순환을 2번정도 들으면서 3순환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시작된 2011년 1차시험 준비는 시중에 모든 모강 문제를 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강사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루에 총 100문제정도를 본 것 같습니다.(2과목 반) 그러나 이번 시험에도 재경직에 5점 정도차이로 낙방하고 스스로 '나는 공직적성이 없는가'라는 생각에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스스로 확신이 많이 무너져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다시 마음의 확신을 갖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경직을 과감히 포기하고 일반행정으로 전환하여 제가 사는 곳에 지역직으로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3. 수험생활의 후반전(2011년 3월~2012년 7월)

일반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행정학을 확실히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3월부터 약 두 달간 행정학만 하게 되었습니다. 박경효교수님 2순환 인터넷 강의를 듣고 한국행정학, 새행정학 등을 읽으며 기틀을 잡고 행정학의 큰 틀을 기반으로한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틈틈이 정치학 기본서라고 할 수 있는 정치과정의 동학, 국제정세의 이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등을 읽었습니다.

여름에는 고시만 자체 평가시험이 있어서 경제학과 행정법 공부를 하였으나 그 이후 기간은 거의 정치학공부에만 매진하였던 것 같습니다. 정원준선생님 예비순환과 1순환 강의를 들었고 주변의 합격생에게 부탁하여 정치학의 주요 분야별로 큰 주제를 몇 개 뽑아서 그것을 기반으로 논문을 끼워 넣고 주제별로 가볍게 정리하는 식으로 서브를 작성하였습니다.

2011년 2학기에는 반년정도 일주일에 한 두번씩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지쳐있던 제 자신을 바로 세우고 다문화가정 혹은 조손가정·편부모가정 아이들을 보면서 사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제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게 하였고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에 행정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스터디를 조직하여 사례문제를 풀었는데 3권을 풀 정도로 매일 꾸준히 행정법을 공부하였습니다. 행정학은 2순환을 들으면서 서브를 보강하였고 정보체계론은 처음 접하기 때문에 1순환을 수강하여 과목의 성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과목들에 치중하다보니 경제학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2012년 1차 준비하는 시기에는 사실 PSAT공부를 다른 해에 비해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학 등 부족한 과목을 보강하려는 마음도 있었거니와 저의 공부방법에 있어 다량의 PSAT문제를 푸는 것이 그리 맞지 않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원 모강에는 꾸준히 응시하여 감을 유지하려고 하였고 내용적 공부보다는 읽는 방법, 문제유형에 대한 공부 등 문제풀이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이러니 하계도 가장 1차에 투자 하지 않았던 2012년에 1차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재경직에서 일행으로 바꾸어서 합격한 것도 있으나, PSAT는 공부량에 비례한다고 하기 보다는 과목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법을 연구하고, 마음가짐을 여유롭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를 치르고 난 뒤 크게 높은 점수는 아니었으나 바로 2차에 매진하였습니다.

3순환강의는 모든 과목을 수강하였고 경제학의 경우 김진욱, 황종휴 양 강사의 3순환 문제를 모두 구해 풀어보았습니다. 행정법의 경우는 시중에 있는 3순환 4명의 강사, 4순환 2명의 강사 정도의 문제를 구해 목차라도 잡아보는 식으로 다 풀어보려고 노력했고 행정학은 고시반 내에서 답안 스터디를 구성해 서로 본인이 쓴 답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고 합격생이 한 번씩 봐주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때 송운현선생님의 강의가 행정학의 다양한 틀을 알려주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정치학의 경우 정원준선생님 강의를 수강하였으나 신희섭, 강제명선생님의 문제도 구해 읽어보았습니다. 정보체계론은 정경호선생님 강의를 들었고 강제명선생님 문제도 구해서 따로 풀어보았습니다.

저의 3순환을 돌아보면 강의는 인터넷으로 들었으나 시중에 있는 강사의 문제를 대다수 구해서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려고 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는 것은 여러 강사의 시각에서 균형감 있게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그동안 광범위하게 양을 불러놓았던 각 서브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는 작업을 하였고 각 과목 기출문제를 항상 옆에 두고 실전감을 잃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예상문제도 선정하여 방향성있게 공부하면서 시험의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시험에는 대체로 예상했던 문제들이 나왔고 정치학의 경우 거의 모르는 문제였으나 개념정의를 명확히

해주고 나름대로의 문제의식 하에서 논리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한 점이 합격권의 점수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4. 수험의 마무리(2012년 7월~2012년 11월)

10월에 2차 합격자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3차 준비를 하였는데 7명의 스터디를 구성하여 매일 토론, 발표, 인성면접을 연습하였습니다. 스터디 구성에 있어서 성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 조는 7명다 남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나중에 다른 스터디와 조인트도 하게 되는 점에서 볼 때 성비구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에 대비하여 무엇을 암기하여 외워간다고 하기보다는 사례위주로 많이 준비하여 최대한 진솔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였고 수험전반에 있어서 고민하고 생각한 것들이 면접의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봤을 때 제 수험생활에서 끝까지 확신을 잃지 않고 조금 흔들렸을 때도 곧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올 수 있게 한 것은 공직자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사회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일종의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막연한 꿈이지만 공적인 마음을 가지려 했던 것이 이 자리까지 스스로를 버티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주변사람들과 같이 축구와 같은 운동을 종종하였습니다. 또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가

볍게 저녁시간에 달리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땀을 흘리고 바깥바람을 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한 점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게 해준 또 다른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III. 과목별 공부방법

1. 제1차시험 - PSAT

1차 점수는 오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1차는 반드시 성적이 오르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총 4번의 시험에서 꾸준히 성적이 상승하였습니다(50점대 초반=>67.5=>69.1=>72.5). 성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PSAT을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PSAT을 잘하지 않아도 노력한다면 누구나 합격권의 점수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SAT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중요한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기본적인 실력은 반드시 쌓아야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초반 2번의 시험은 기본적인 실력이 많이 부족한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기본강의 위주로 과목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양한 문제 풀이를 통해 기본적인 PSAT의 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꼼꼼한 기출분석을 하여 모강과는 다른 실전문제의 '느낌'을 잘 알아두어야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세 번째 해에는 시중에 거의 모든 강사의 문제를 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문제를 풀었으나 이 해에 떨어진 것은 어느 정도 기본기는 쌓았으나 1차를 접근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였고 마음가짐 측면에서도 1차에 매우 쫓기는 기분으로 하였기에 실패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문제풀이의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PSAT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 외에도 문제를 푸는 기술적인 것이 많이 작용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3 회독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였는데 40문제를 3번 정도 다시 보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1회독 시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제들을 먼저 골라 풀고 2회독이나 3회독 시에 남겨진 문제를 풀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간도 확보하고 마음의 여유도 생겨 남겨진 문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위해서는 문제 유형별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먼저 파악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이란 저의 경우 급하게 마음먹은 경우 불합격하고 가장 여유 있게 생각한 해에 합격한 것을 볼 때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라도 편안히 마음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제2차시험 - 논술형

(1) 경제학

저는 모든 과목을 직접 손으로 서브로 만들었는데 손으로 만든 서브의 장점은 자신이 직접 쓴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수정보완작업을 한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거의 잊혀지지 않고 큰 틀로서 과

목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속적으로 손으로 수정 보완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경우 수험 초반기에 순환강의를 들으면서 교과서를 꾸준히 읽고 나만의 틀과 기초를 쌓은 것이 나중에 경제학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실력을 유지하게 해주었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초반에 만들어 놓은 서브를 매 순환강의를 들으면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고 필요 없는 내용을 삭제하는 식으로 수험생활이 끝날 때까지 보완 작업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거시경제학의 경우 교과서를 많이 읽고 큰 틀을 잘 파악해 두어서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미시경제학의 경우 500제나 임봉욱교수님저 등의 주요 문제를 많이 풀지 못해 일부 고난이도 문제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추세가 기본기에 강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만큼 기본을 충실히 하고 기본문제에 대한 다양한 풀이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행정법

행정법도 김기홍선생님 쟁점정리를 바탕으로 수험 초반에 만든 서브를 끝까지 보았습니다. 이 경우 3공파일에 논점을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시켰고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는 그림을 그려서라도 꼭 까먹지 않게 손으로 직접 써서 서브에 추가시켰습니다. 양이 너무 많게 되었으나 내가 직접 손으로 쓴 내용이므로 이해하기도 쉽고 나중에 찾아보기도

쉬워서 홍저를 어느 정도 본 이후에는 계속 서브만 보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행정법은 사례풀이도 매우 중요한데 저는 2011년 2학기에 3개의 사례집을 연달아 보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김연태, 박정훈, 김정일사례집). 특히 박정훈교수님 사례집은 교과서처럼 자주 풀고 또 계속 찾아보고 하여 3순환 때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부족한 논점의 논리를 강화하는데 매우 유용하였습니다.

(3) 행정학

행정학은 2011년에 1차 낙방 후 일반행정으로 바꾸기 위해선 행정학에 자신 있어야 한다는 일념 하에 2달 정도 행정학에 집중하여 교과서를 보고 강의를 들어서 나름대로의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교과서는 널리 알려진 새행정학과 한국행정학을 보았는데 특히 한국행정학을 읽으면서 과목의 성격을 파악하고 행정학의 큰 그림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브도 한국행정학의 틀에 기초하여 주요내용을 끼워 넣는 식으로 큰 범주로서 서브를 우선 만들고 관련내용을 복사하거나 직접 써서 붙여 넣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서브를 추가하고 보완해 나갔습니다.

행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논리적인 글쓰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된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깔끔한 틀로서 자신의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행정학의 기초가 어느 정도 쌓인 뒤에는 어떤 상황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저만의 틀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틀을 만드는 작업은 주어진 문제에 논리적인 글을 보기 좋게 제시하는데 유용하였습니다. 다만 올해 일반행정 문제를 볼 때 현실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진 점에서 글쓰기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현실사례나 풍부한 이론적 논의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 정치학

정치학은 일반행정으로 바꾼지 얼마 되지 않아 매우 불안한 과목이었으나 한편으로는 범위가 특별히 없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생각했던 과목이었습니다. 저는 수험기간 내내 신문물을 구독하였고 주간지도 자주 사보아서 사회현안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점이 정치학에 흥미를 갖게 해주는데 주요했습니다.

저는 3순환 때까지 정치과정의 동학, 국제정세의 이해를 2~3번 정도 읽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고 비교정치(민주주의의포함), 정치경제, 국제정치, 정치사상 파트에서 중요한 키워드 몇 개를 골라 큰 틀을 만든 뒤 논문을 끼워 넣거나 손으로 써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정치학에 흥미가 있었더라도 기본적인 이론이나 논의의 흐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주로 논문을 활용하여 그 논문의 논리나 아이디어를 배우려 노력하였습니다. 이점이 정치학 답안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차 기간에도 정치학 논문을 많이 읽어 두었는데 3순환까지 정리한 논문이 약 50여개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학도 마찬가지로 논리적 글쓰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념정의를 구체적으로 해주고 명확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글쓰기를 자주 연습해 보는 것이 답안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정보체계론

정보체계론은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해 많이 불안하였으나 생각보다 양이 적고 행정학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나중에는 공부하기가 가장 편했던 과목이 되었습니다. 권기헌교수님을 주로 봤는데 체계가 명확해서 큰 틀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학적 내용에 정보기술들을 추가하는 식으로 공부하였고 강사가 정리해주는 자료들 외에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등을 자주 들어가서 최근 떠오르는 이슈 등 관련 자료를 출력하여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정보체계론은 틀을 잘 사용하여 보기 좋게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데 B/O, F/O 등의 틀 외에도 나름대로의 틀을 다양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실전에서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가 나왔으나 틀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보기 좋게 제시한 점이 합격권의 점수가 나온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 제3차시험 - 면접

3차 면접은 스테디만 하였고 학원은 다니지 않았습니니다. 다만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해주시는 모의면접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면접은 크게 집단토론(GD), 개인발

표(PT), 인성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 면접이라는 큰 범주에서 볼 때 자신을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진솔한 모습을 밝게 그리고 덤덤하게 이야기 하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별 면접(PT)에 가장 집중하였는데 하루에 2개씩은 꼭 기획안을 작성해 보려고 노력한 점이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평소 사회이슈 등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고 수험생활의 와중에도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자신이 왜 공직에 지원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치열하게 고민하여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IV. 나가며

수험의 시간은 끊임없는 자신을 이겨내는 극기의 과정이라고도 하지만 그전에 우선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합격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행여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내 마음을 다잡을 용기가 있는가. 수험의 시작과 끝은 마음가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꿈을 가지고 합격을 위해 노력하고 그 마음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과정이 수험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공직에 계시지 않더라도 공적인 삶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하며 가르쳐주셨던 아버지,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다. 저의 든든한 후원자 누나와 동생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제 수험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건대고시반 일우현 친구들 고맙습니다. 항상 관심과 배려로 이끌어주시는 장교식 일우현관장님, 지도교수이신 김준모 교수님, 강황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수기에 지면을 내어 주신 고시계 전병주 편집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험생활에서 수험생 한명보다 그 주

변사람들이 더 고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합격도 마찬가지로 저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한고비를 넘기기까지 함께 울고 웃어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청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묵묵히 책장을 넘기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이 다가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